

본관은 덕수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형인 이효신의 11대손으로 1856년(철종 7년)에 아산군 도고면 신유리에서 태어나셨다. 어려서 부터 강직한 성품과 총명함을 소유했음은 물론이요 부모님께 대한 효성 또한 지극하여 그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어서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목숨을 바치겠다는 강한 결의 같은 것이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런 결의는 그의 평생을 두고 한결 같은 것이었다. 후에 장성하여 부인 김씨와 결혼하여 아들 준영과 딸 셋을 두었는데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고 용감하였으며 목숨을 아까워 하지 않는 정열, 즉 애국심이 그의 가슴속 깊이 새겨 있었다.

이런 이준영씨의 부인으로는 훈련원 판관으로 있던 박영성의 딸인 밀양박씨를 맞아 드렸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앞서 한 나라의 군인으로써 임무에 충실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에 반대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던 이준영 참위가 아깝게도 서울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이민학씨는 분노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라의 일에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였다.

그후 일본 헌병대에서는 그 유가족에 대한 감시와 박해가 심해졌으므로 이민학씨는 집을 나와 의병 단체에 가담하였다. 아들의 원수 그보다는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의병활동에 온 힘을 다 쏟았다. 그러나 비밀리에 진행되던 의병 활동도 친일파 단체인 일진회 회원중 한사람의 밀고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이민학씨는 이제 자신의 앞일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지만 비굴하게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그 당시 함께 체포되었던 의병 3명과 함께 예산군 광시면 주를 참나무정 아래에서 1908년 9월 10일 총살 당하였다고 한다. 향년 52세였다.

잠시 생각해 본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자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선열들의 피땀의 결과라는 것을. 이렇게 지킨 땅을 우리는 가꾸어야 할 것인가를.

선열들이시여 ! 목숨걸고 투쟁하신 그 투혼 본받아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나이다. 고이 잠드소서.